제4강
예술 작품의 수용(1)
해석의 문제

***예술 작품의 감상과 미적 가치: 미적 가치는 본래적 가치인가 도구적 가치인가?**

왜 우리는 예술 작품을 감상(appreciation)하는가?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술 작품이 감상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리라. 그렇다면, 예술이 지닌 가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물음을 제기해보자면, 예술 작품을 경험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험이 지닌 가치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가치는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구분될 수 있다. 예술은 어떤 가치를 갖는가? 그것은 본래적 가치인가? 아니면, 그것은 도구적 가치인가? 그도 아니면, 예술은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인가?

미적 가치가 본래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의하면 예술 작품 감상의 목적은 작품 그 자체가 제공하는 미적 경험 속에서 찾아져야만 한다. 이 경우, 미적 가치란 예술 작품의 경험에서 오는 즐거움, 즉 미적 경험이나 미적 감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즐거움이기에, 미적 가치는 오직 예술 작품 안에만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 그런데 만일 미적 가치가 예술 작품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라면, 이러한 가치는 인식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미적 가치가 본래적이라는 주장은 미적 가치의 자율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미적 가치가 본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예술을 위한 예술'(l'art pour l'art)을 표어로서 제시했던 유미주의(불어: esthétisme, 영어: aestheticism)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비어즐리(Monroe C. Beardsley)는 미적 가치를 지닌 대상은 미적 경험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다른 경험들로부터 독립적인 미적 경험 그 자체의 가치를 강조한다. 또 스톨니츠(Jerome Stolnitz)도 역시 미적 가치의 본래성을 주장하는데, 그에 의하면 미적 경험을 특징짓는 것은 무관심적 태도이며, 이러한 무관심적 태도로 인해서 미적 경험은 다른 경험들과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비어즐리나 스톨니츠의 이러한 유미주의적 주장들이 갖는 공통점은 미적 경험과 다른 경험들 간의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적 가치가 가치 있는 미적 경험에서 기인한다는 이러한 주장이나 미적 경험이 다른 경험들과 구분된다는 주장은 모두 미적 가치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적 가치의 자율성이란 미적 가치가 미적 경험과 구분되는 다른 경험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인식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미적 경험은 정말로 다른 경험들과 구분되는 것인가? 미적 가치가 아닌 인식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도 예술 작품의 감상 및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그리고 설령 미적 경험이 다른 경험들과 구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무관심적 태도이어야만 하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 미적 가치의 본래성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이 던지는 질문이다. 미적 가치가 예술 작품 안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에 의하면 미적 가치는 예술 작품 바깥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톨스토이는 예술이 추구하는 목적이 윤리적이라고 봄으로써, 미적 가치를 예술 작품의 바깥에서 구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톨스토이는 모두 한결같이 예

술 작품의 가치가 예술 작품의 내부에, 즉 미적 경험이 주는 즐거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넘어선 것에, 즉 예술 작품의 바깥에 있다고 주장했다.

***예술 작품의 해석: '해석'의 어원적 고찰**

예술 작품이 본래적 가치(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갖는 예술 작품에 대한 경험과, 예술 작품이 도구적 가치(외재적)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갖는 예술 작품에 대한 경험은 다를 것이다. 그런데 미적 가치에 관해서 상이한 입장들이 야기할 수 있는 상이한 경험의 양태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술 작품의 경험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석(interpretation)이다. 달리 말해서, 예술작품을 경험하는 모든 방식들은 작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활동, 즉 해석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것이다.

#hermêneuein(헤르메네웨인)과 hermêneia(헤르메네이아)의 세 가지 뜻

'해석하다'(interpret)라는 동사의 어원은 '해석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동사 hermêneuein(헤르메네웨인)과 '해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명사 hermêneia(헤르메네이아)이다. 이 두 단어들은 모두 헤르메스(Hermes) 신과 연관되는데, 헤르메스는 인간의 이해 능력을 초월해 있는 어떤 것을 인간의 이해능력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주는 기능과 관련된다. '해석'이라는 단어의 그리스적 유래를 살펴보자면 해석은 이해에 이르는 (매개적) 과정 내지는 메시지 전달의 과정을 보여준다. hermêneuein(헤르메네웨인)과 hermêneia(헤르메네이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1) '말로 크게 표현하다'(진술하다, 말하다), (2) '설명하다', 그리고 (3) '번역하다'이다. 따라서 해석의 과정은 (1)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2)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 말하다

아주 단순한 말이나 진술 또는 선포는 이미 해석의 중요한 작용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각기 표현의 방식, 즉 수행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이나 수행 스타일은 구어 해석(oral interpretation)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문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구어 해석자가 문자로 쓰인 텍스트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원래의 살아있던 말의 단순한 껍데기(죽은 문자)만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은 문자를 살아있는 말로 다시 살려내기 위해(재생하기 위해) 구어 해석자는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 파악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기에는 일종의 역설이 있다. 왜냐하면 제대로 낭송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읽을 것들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이해는 텍스트를 읽어감으로써 얻어지기 때문이다.(해석학적 순환 hermeneutischer Zirkel)

(2) 설명하다

말은 무언가를 설명하고 합리화하며,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은 해석의 한 형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해석에 관하여Peri hermêneias>에서 해석(헤르메네이아)을 '언명'(enunciation)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석을 언명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그가 해석을 한 사물의 참 혹은 거짓과 관련된 진술을 하는 정신의 작용 내지는 지성의 작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기본 작용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

다: 1. 단순한 대상들에 대한 이해. 2. 종합과 분석의 작용. 3. 알려진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에로의 추론작용. <해석에 관하여>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루는 지성의 기본 작용은 바로 두 번째의 것, 즉 종합과 분석의 작용이다. 종합과 분석의 작용으로서의 언명은 이미 설명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언명을 표현하는 화자는 이미 이러한 진술의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종합(구성)하고 분석(분할)하는 작용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설명은 논리적 분석의 제 과정에 선행하는 보다 근원적인 해석이다. 즉 진술되고 있는 사물이나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방법)에 대한 해석인 것이다.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과 대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방법은 이미 내가 접근하려는 대상을 한계짓기 때문이다. 즉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은 대상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미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석, 즉 방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석은 작품의 (명시적) 해석을 위해 기초가 되는 해석, 즉 예비적 해석으로서의 선이해(독어: Vor-verstehen/Vor-Urteil, 영어: preunderstanding)인 것이다.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해석, 즉 근원적인 해석이 가져오는 해석학적 통찰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의미는 맥락(context)의 문제이며 설명으로서의 근원적인 해석은 맥락화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설명으로서의 해석은 맥락적 혹은 지평적(horizontal)이다. 예술 작품은 자연적인 현상과는 구분되는 문화적인 현상에 속한다. 따라서 예술 작품을 (명시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비적 해석으로서의 선이해가 요청된다. 달리 말해서, 예술 작품의 명시적이고 분석적인 해석 이전에 근원적인 해석이, 즉 작품의 맥락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3) 번역하다

hermêneuein(헤르메네웨인)의 세 번째 뜻은 '번역하다'이다. 번역은 단순히 모국어에서 번역할 언어에 상응하는 동의어를 찾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두 세계를 매개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성서의 낯선 세계 속에서 살던 저자들은 역시 언어의 매개를 통해서 자신들의 세계와 관계했었다. 이러한 언어로 쓰여진 성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언어의 매개를 통해서 말해져야만 한다. 바로 이 문제가 루돌프 불트만(Rudolf Karl Bultmann)이 주장했던 탈신화화(독어: Entmythologisierung, 불어: la démythologisation)의 문제이다. 불트만은 (신약)성서의 메시지가 천상과 지상 그리고 저승이라는 세 차원의 우주로 이루어진 우주론적 세계관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독자들은 신약성서를 이해하기 위해 신약성서가 전제하고 있는 낡은 우주론적 세계관을 믿어야만(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불트만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주론적 세계관은 성서의 메시지의 맥락일 뿐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가지 살펴본 해석의 세 가지 뜻들은 모두 하나의 동일한 해석적 사태를 지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적-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낯설고 이해불가능한 어떤 것이 친숙하고 이해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사태이다. 따라서 예술 작품 해석의 과제는 의미상으로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고 낯설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불명확한 것을 친숙하며 명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리라.